

1.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부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2. 다하나교회에 처음 오신 분과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매월 첫주 주일 예배는 온 가족 예배로 드리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4. 목자모임이 예배 후 4시 30분에 시나이 룸에서 있습니다.
5. 다하나 캠프 싸인업을 받습니다. 부분 참석도 가능합니다.
 - 주제 : 밥 목자! (요한복음 21장 12절)
 - 일시 및 장소 : 5월 30-31(토,주) / Good Earth Village
6.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 5일 : Kendall Lee / 6일 : 여하엘

*다음주 예배봉사자

- 기도: 위충일 / 설교번역: 이예슬
- 5월 안내 및 봉사: 코니 목장

*향후 교회 행사 (Upcoming Event)

- 부서지기 모임 : 5월 10일
- 다하나 캠프 : 5월 30-31(토,주) @ Good Earth Village

*성서일과 Lectionary (제 18주)

행 7:55-60, 시 31:1-5, 15-16, 벰전 2:2-10, 요 14:1-14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주일예배 : 매주 주일 오후 3시
수요기도회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Zoom으로

3401 SALEM RD SW, ROCHESTER, MN 55902
Web : <https://mnrochesteroneheartchurch.com>
담임목사(Senior Pastor) : 김경헌 목사 (213-357-7614)

예배순서

인도자: 김경헌 목사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시 36:7, 10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기도		소정진
주일학교 이동		주일학교 교사 및 학생
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같이
성경봉독	야고보서 2장 14-17 절	인도자
설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김경헌 목사
봉헌찬송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 5절)	다같이
봉헌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파송찬양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다같이
*축도		인도자

* 표에는 일어납니다.

목회편지 / 슬픔의 틈새

한 달에 한 권 이상은 소설을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소설은 인간의 감정을 자세히 그립니다. 인물들의 감정에 반응하고 공감하며 치유를 맛 본다는 면에서 소설은 정서적인 부요함을 줍니다. 작년부터 디아스포라들에 관한 소설을 일부러 읽어 오고 있습니다. 내가 몰랐던 디아스포라들의 역사를 소설을 통해 배우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읽은 소설은 소설가 이금이의 <슬픔의 틈새>인데 일제 시대 사할린의 탄광 노동자로 일본에 의해 강제 징용된 디아스포라 한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의 이야기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사할린의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이야기는 낯설었습니다. 단옥은 열두 살이 되던 해 어머니와 함께 고향을 떠나 사할린으로 옮겨 옵니다. 탄광 노동자로 강제 징용 당한 아버지를 찾아 뒤늦게 온 것이었죠. 고향 다래울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동생 영옥을 맡기고, 사할린으로 오던 길에 오빠는 자기만의 삶을 찾아 떠나게 되죠. 단옥은 열심히 탄광촌 학교에서 일본어를 익히고 이름도 타마코로 개명을 합니다. 단옥은 사할린에 온 지 2년 만에 해방을 맞지만, 패전한 일본은 사할린의 광산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모두 끌고 가면서 아버지와 생 이별을 하게 됩니다. 사할린의 한인들은 해방된 고국에서 자신들을 귀환시켜 줄 날만 기다리지만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는 해외에 흩어진 자국민들을 돌볼 여력이 없었죠. 해방과 함께 조선 학교가 사할린에 세워지자 단옥은 열심히 한글 공부를 하며 두각을 나타냈죠. 하지만 사할린 땅이 소련 정부에게 귀속되자 조선 학교는 북한에서 온 선생님들로 채워지고 그나마 있던 조선 학교도 폐교가 되고 러시아어 학교로 바뀝니다. 사할린의 조선인들은 북한을 통해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자녀들을 교육시킬 명분으로 북한 국적을 취득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좀더 안정된 삶을 위해 소련 국적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고국이 그들을 불러줄 날만 기다리며 무국적으로 남기도 했지만 소련 정부로부터 차별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단옥은 고향에 대한 미련을 점점 밀어내고 올라라는 러시아 식 이름으로 개명하여 그 사회에 녹아듭니다. 1990년대가 되어서야 1세대 사할린 이주민들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들은 이미 사할린 땅에서 뿌리를 내린 뒤였지요. 사할린 땅에서 그들은 이방인으로 조국으로부터 버려진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했지만, 그 슬픔의 틈새 사이로 그 땅에서 누리는 삶을 통해 의미를 찾아가야만 했죠.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해방을 맞은 날이 사할린 한인들에게는 고향과 가족을 잃는 날이었다는 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디아스포라의 삶을 이해하기에 단옥의 삶이 더 깊이 다가왔습니다. 단옥, 타마코, 올라라는 그녀의 각각 다른 이름은 그녀가 겪어야 했던 슬픔의 역사를 고스란히 전해 줍니다. 미국 땅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우리네가 느끼는 슬픔과 고단함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슬픔의 틈새로 기쁨과 평안이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디아스포라 형제 자매 여러분, 부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